

영광군 도시재생 아카데미 공모사업 기획가 과정 수료식 성료

영광군은 최근 영광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2024 영광군 도시재생 아카데미 '공모사업 기획가'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도시재생 아카데미 '공모사업 기획가' 과정에서는 주민공동체가 직접 필요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공동체 및 협력 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각 영역의 공동체 조직 간 적극적인 연계망을

지원해 주민이 주축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 유도를 위해 마련한 과정이다.

지난 2월 21일 시작된 아카데미는 공모사업의 이해, 공모사업 방향 정하기, 공동체 미래를 위한 사업 기획,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및 e-나라도움 입력 실무, 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등을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과정 교육생은 지난 3월 14일 관계자를 포함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남도 강진

군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병영면 주민주도 마을여행 체험, 빈집 활용 청년인구 유입 등 현장 탐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군 관계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교육생 등 15명이 참석해 수료증 수여와 함께 소감을 발표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교육생 A씨는 "아카데미에 참석한 모든 주민

이 영광군 도시재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면서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의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과정의 수준을 향상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도동지구 및 영광군 발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률 기자

나주, 국내 최초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탄소배출 규제에 전기차 전(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454억원규모로 나주 혁신산업단지에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서 재사용·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 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전주기 배터리 제조·생산에서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기차 전주기의 탄소배출, 환경, 자원순환 등 통합환경정보를 수집·분석·운용·유통·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입고 단계부터 배터리팩 또는 모듈 진단 결과, 등급 분류, 안전성 검사, 출고 이력까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든 표준화된 데이터, 이력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전기차 전주기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유통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센터 구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적인 탄소중립 규제 대응과 더불어 배터리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따른 순환 경제 활성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기자

담양,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주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담양군은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목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추진한 점과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주민들의 13년 숙원사업이었던 담양호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순창군과 긴밀히 협의해 이뤄낸 도수터널 차수벽 철거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장진성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춘양면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 보검재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구복규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화순군의회, 화순소방서, 임업인,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여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제79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춘양면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 보검재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구복규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화순군의회, 화순소방서, 임업인,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여해 춘양면 대신리 입아 1.5ha에 산벚나무 2천500그루를 심었다.

구복규 군수는 "산림 치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라며,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순군은 산림이 전체면적의 73%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애써 심고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봄철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구 군수는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눈·발두령 및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등과 산불 예방 및 소각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문수 기자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지원 확대

장성군은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5천원, 연간 총 18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의 쾌적한 일상 유지를 돕고 있지만, 고령 주민의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됐다.

효도권이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

경태 사용이 편리해졌다.

연간 사용액이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33%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분기별 4만5천원에서 6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용처 확대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 원 가운데 6만 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된다.

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24만 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용업소 협약, 카드 배부 등을 진행한 뒤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권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

/유광종 기자

